

BLIZZARD  
ENTERTAINMENT

# 1

# WORLD OF WARCRAFT

BATTLE FOR AZEROTH



제 이 나  
재 회

ANDREW ROBINSON • LINDA CAVALLINI • EMANUELE TENDERINI



## 제 이 나 재 회

ANDREW ROBINSON 글

JIWON OH 번역

LINDA CAVALLINI 그림  
EMANUELE TENDERINI

COMICRAFT 식자

ALLISON MONAHAN 주임 교열 편집자

CATE GARY 선임 편집자

ROBERT SIMPSON 퍼블리싱 수석 편집자

LINDA CAVALLINI 표지  
EMANUELE TENDERINI

JOHN J. HILL 그래픽 디자이너

ALEX AFRASIABI 크리에이티브 자문  
STEVE DANUSER  
GLENN RANE  
CHRIS ROBINSON

SEAN COPELAND 세계관 자문  
CHRISTI KUGLER  
JUSTIN PARKER

BRIANNE M LOFTIS 프로듀서  
PABLO A. LLOREDA  
DEREK ROSENBERG  
RYAN THOMPSON

BYRON PARNELL 글로벌 라이선싱 선임 매니저

RALPH SANCHEZ 크리에이티브 개발 디렉터

FELICE HUANG 도움 주신 분

기어 스토어에서 다른 블리자드 상품을 살펴보세요.  
[GEAR.BLIZZARD.COM](http://GEAR.BLIZZARD.COM)



WORLD OF WARCRAFT #1 ©2018 Blizzard Entertainment, Inc.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에게 있습니다.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Battle for Azeroth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이며, World of Warcraft, Warcraft,  
Blizzard, Blizzard Entertainment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테라모어.

마치 필연처럼,  
나는 이 폐허로 돌아와...

...망령들 사이를  
헤매고 있다.

잃어버린 도시를  
다스리기에...

...길을 잃어버린 이보다  
더 적합한 자가 있을까?

어쩌면, 내가 걸었던 모든  
길은 이곳으로 돌아오기  
위험이었을지도 모른다.

달라란에서,  
나는 호드를 다시 받아들인  
키린 토와 연을 끊었다.

나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준 유일한 이...  
나의 칼렉고스로부터도 떠났다.

그 짐승들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동료 마법사들은  
어째서 알지 못하는 걸까?

나는 홀로,  
악마와 싸우기 위해  
나아갔다.

나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고,  
누구도 날 의지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해방된 듯한...  
자유로운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의 책임...나의 의무가  
나를 짓눌러 왔다...

...그리고 호드는 결국  
우릴 배신하겠지.  
늘 그랬던 것처럼.



테라모어의 잔해는  
꿈임없이 내 과거를  
상기시킨다...

...나의 실패도.

주변 이들은  
내가 공감할 수 있기에  
강한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로쉬  
헬스크림에  
의해 몰살당한  
나의 백성들을  
본 순간...

공정과 관용을  
길잡이 삼은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절감했다.

그러고자 했다면,  
진작에 바리안과 함께  
언더시티에서  
호드를 없앨 수도 있었다.



평화를 향한 내 소망은  
나약함으로 드러났고...

...적들은 언제나  
기꺼이 그걸 이용했다.

**테라모어 성채**



더 이상  
멍청한 선택은  
하지 않으리라.



달라졌을  
내 삶을...

...그리고 바뀌었을  
세상을...  
상상해 본다...

...내가  
아버지 곁에서  
싸웠다면.



...호드가 데렉을 죽였을 때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아버지를 삼켰던 분노를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었을까?



...3차 대전쟁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도왔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을까?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함께  
호드를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



나는 수년 간  
이 질문들을 외면해 왔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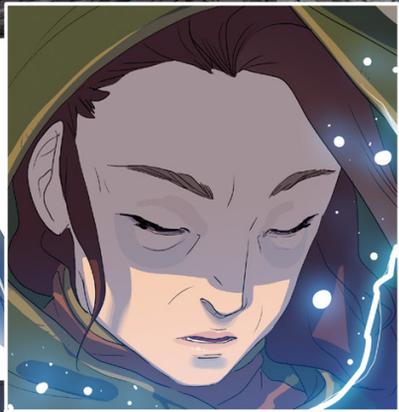
대면할 때가  
온 걸지도 모른다.



긴 세월 끝에,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고향으로.

도시 국가 클 티라스 섬의 수도,  
보랄리스



...2차  
대전쟁 때...

...그는  
얼라이언스를  
지키기 위해...  
고향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소.



3차 대전쟁 이후,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의 해군을 이끌고 갔소.  
우리 해군을 말이요!

그들은  
호드의 마수로부터  
딸을 구하고, 딸의 도시를  
구하기 위해 바다를  
가로질렀소...



우리는  
그에 따랐습니다,  
군주님!  
기억하고 말고요!

그분은 최고의  
지도자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소?

배신이었지!  
가장 믿었던...



...친자식의 배신...



...그녀는 호드의 핵심 지도자와 공모했고...

...물러선 채 놈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걸 지켜봤소!



그 여자는 배신자입니다! 제이나에게 죽음을! 배신자에게 죽음을!

제이나 같은 자에겐 죽어도 사치입니다!

그들의 증오란...



내가 사랑했던 델린이 완벽했던 건 아니었소.

하지만 델린은 위대했소. 우리가 아는 가장 훌륭한 이였지.

델린은 호드와의 전투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았고, 단 한 번도 그 대가를 치르는 데 망설이지 않았소.



그는 그런 괴물들과 평화를 이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던 거요.

델린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소. 쿨 티라스를 위해 죽었소!

쿨 티라스!  
쿨 티라스!  
쿨 티라스!



난 그저 전쟁을 멈추고 싶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전사, 백성에게 닥친 위험을 절대 외면하지 않았던 그를 기리시오!

하지만 나는 잘못된 생명을 구했던 거다.

프라우드무어!  
프라우드무어!  
프라우드무어!

이제 이곳은... 이 사람들은... 나처럼 어딘가 망가져 있다.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프라우드무어 군주님?

무슨 일이요, 코플랜드 제독?

...괜찮으시다면,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독,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웨이크레스트 가문은 오늘마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소. 소위 명문이라 불리는 가문들의 방문도 해마다 줄어드는군...

그대의 용건은 뭐지?



좋은 소식은...아닙니다. 불타는 군단의 괴멸이 평화의 신호가 될 줄 알았지만...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이미 반복하고 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지. 하지만 그건 우리와는 상관 없는 일이요.

쿨 티라스는 수년 간 얼라이언스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



호드는 이미 출정했습니다.

중립을 지키라고 해서 가만들 놈들이 아닙니다.

장담컨대, 우리는 호드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얼라이언스와 다시 협력하는 걸 고려해 주십시오.



그럴 순 없소. 그들은 죽은 델린의 원수를 갚아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얼굴에 침을 뱉었던 자들이요...

...게다가 공격을 받기도 전에 도움부터 구하는 것만큼 약자 같은 행동도 없지.

난 약하지 않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 해군 또한 다시금 견고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청컨대... 이제는 과거의 앙금을 내려놓고 미래의 이익을 살필 때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손을 내미는 것도 고려해 볼직합니다. 쿨 티라스를... 고향처럼 지킬 사람에게 말이죠.



그녀...를 말하는 건가.



제독,  
대포 소리를 듣다 보니  
귀머거리라도  
된 거요?

...아닙니다,  
애쉬베인 님.



그렇다면,  
방금 우리 군주께서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제로스의 구원자"이자  
잘나신 대마법사  
제이나 프라우드무어를..  
이곳에 부르자는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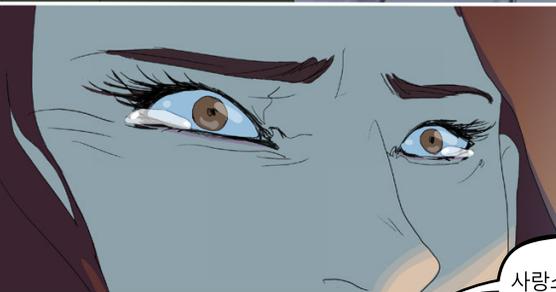
쿨 티라스의 정예 병력을  
이유 없이 죽도록 내버려 둔  
독사를 두 팔 벌려 환영이라도  
해야 하는 거요?  
그게 그대의 간언인가?



그만하십시오.

제이나가  
그렇게 된 데는  
내 책임도 있소.  
딸아이는  
특별했소...  
똑똑했지.

그리고 본디  
아주 상냥한 영혼을  
가졌었다오.



난 내 딸이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다면 뭐든 했소.

델린과 싸우면서까지  
그 아이가 달라람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했지.

맙소사,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난 아이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걸 잊었소.  
백성에 대한  
충성도.

그녀에게  
사랑스러웠던 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너무 군사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손을 뺀지" 않을 거요, 제독.  
쿨 티라스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소.



제독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프라우드무어 군주님 말씀 못 들었나.  
현재의 병력으로 싸운다. 쿨 티라스는 홀로 싸워 나갈 것이다.



아니...



...그렇게 두지 않겠어.

